화산신앙

바로 앞에 있는 2 개의 건물은 사이간덴지 절(왼쪽)과 아소 신사의 상궁인 아소산조 신사(아래 오른쪽)입니다. 건물은 작고 새로 지은(절당은 2022 년, 신사 신전은 1958 년 건설) 것이지만 그 유서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소산조 신사는 기원전 282 년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제 7 대 고레이 천황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사이간덴지 절은 726 년에 창건되었습니다. 둘 다 신앙의 중심은 아소산의 분화구입니다. 원래 일본 민간신앙의 일부였던 화산신앙은 신도와 불교 모두에 도입되었습니다. 수 세기 동안 이 지역에는 야마부시(산악 수행자)들이 살며 기도를 올렸고, 많은 참배자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아소산조 신사의 신관들과 사이간덴지 절 승려들의 주된 목적은 하나였는데 아소산의 신,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健磐龍命)에게 기도를 올려 그의 기분을 좋게 유지해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와 동료 신들이 분화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변 농작물이나 가축, 주거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소산의 분화가 예고하는 나라 전체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아소산 기슭에 있는 사이간덴지 절 본원의 주지스님은 매일 이곳에 와서 아소산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한편, 아소 신사의 하궁 신관들은 매년 6 월에 화산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고, 고헤이(흰 종이로 만든 장식이 달린 신장대)를 공물로 분화구에 던져 넣는 '화구 진혼제'를 거행합니다.